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21.(화) 11:00 < 5.22.(수) 조간 > 배포 2024. 5. 21.(화)

5월 수출 플러스, 흑자흐름 지속 기대

- '24.1분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
-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월 수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강경성 1차관 주재로 5.21.(화) 오후 제5차 수출품목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수출은 '23.10월 플러스 전환 이후 확고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인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갔으며, 주요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 수출 호조세를 고려하여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2.6%로 상향 조정하였다.

* '24.1Q 주요국 수출증감률(WTO, 전년比) : 한국 **+8.3%**, 중국 +1.5%, 일본 △3.0%, 미국 △0.3%
* '24.1Q 우리나라 GDP성장률 +1.3% ← **순수출 기여도 +0.6%** (한국은행)
* '24년 한국 GDP성장률 전망(OECD) : ('24.2월) 2.2% → (5월) **2.6%** (+0.4%p)

'24.1~4월 합산 수출도 전년대비 +9.6% 증가한 2,200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52.0%)·디스플레이(+13.4%)·컴퓨터(+36.4%) 등 IT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작년부터 이어온 자동차(+4.7%)·선박(+47.5%)·일반기계(+0.9%) 등 주력 수출품목 호조세도 지속되었다.

강경성 1차관은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최전선에서 견인하였다면, 4월에는 정보통신(IT) 전 품목과 대다수 주력품목이 골고루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강조하며, "5월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굳건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마케팅·인증 지원확대, △업종별·기업규모별 맞춤형 지원 등을 포함한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 대책'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즉시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04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